

배포일시	2021. 10. 28.(목) 15:00 (총 3매)		보도시점	2021. 10. 29.(금) 10:00	
담당부서	기후과학국 해양기상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실	담당자	과장 유승협 실장 김록주	전화번호	02-2181-0742 044-330-2370

여객선 항로기상정보와 운항정보, 한 번에 확인하세요!

- 기상청-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협업으로 항로기상 융합서비스 실시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김경석)은 여객선 이용객의 해상안전과 편익증대를 위해 10월 29일(금)부터 항로기상정보와 여객선 운항정보를 융합한 ‘항로기상 융합서비스’를 제공한다.
 - 여객선은 약 491개의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으로 연평균 약 1,5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, 여객선 운항통제의 주원인은 기상(기상특보, 시정악화, 기상악화 등)으로 전체 통제 건수의 약 98%에 해당한다.
 - ※ 내항여객선 수송인원: (‘17)1,691만명, (‘18)1,463만명, (‘19)1,459만명, (‘20)1,063만명
 - ※ 기상에 의한 여객선 운항통제/전체 통제 건수: (‘19)18,830/19,006건 (‘20)22,754/23,163건
 - 이에 여객선의 항로별 기상정보와 운항통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로기상 융합서비스를 해양기상정보포털(marine.kma.go.kr)에서 운영한다.
- 현재 해양기상정보포털 항로기상정보는 여객선의 운항항로에 대한 해양기상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 - 국내 58개 여객선의 주요 경유지와 항구별 파고, 바람, 날씨 정보와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해양기상정보포털의 연간 이용자는 약 78만 명에 이른다.

- 하지만 그 외 여객선 운항 등 부가적 정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(www.komsa.or.kr)이나 각 여객선터미널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, 편리성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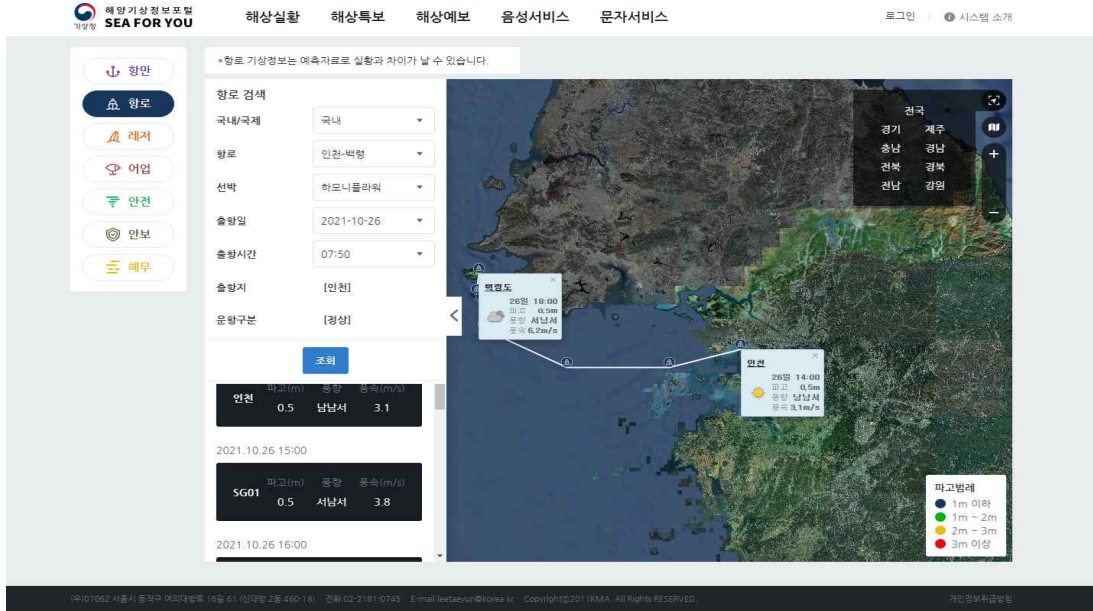
- 이에 이번에 새롭게 실시되는 항로기상 융합서비스는 운항통제 여부 및 원인 등 여객선 운항정보를 기상정보와 연계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,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였다.

- 항로기상 융합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상에 따른 여객선 운항정보 변화를 사전에 확인할 시, 여행 날짜 및 장소 변경 등 기상변화에 민감한 도서 지역으로의 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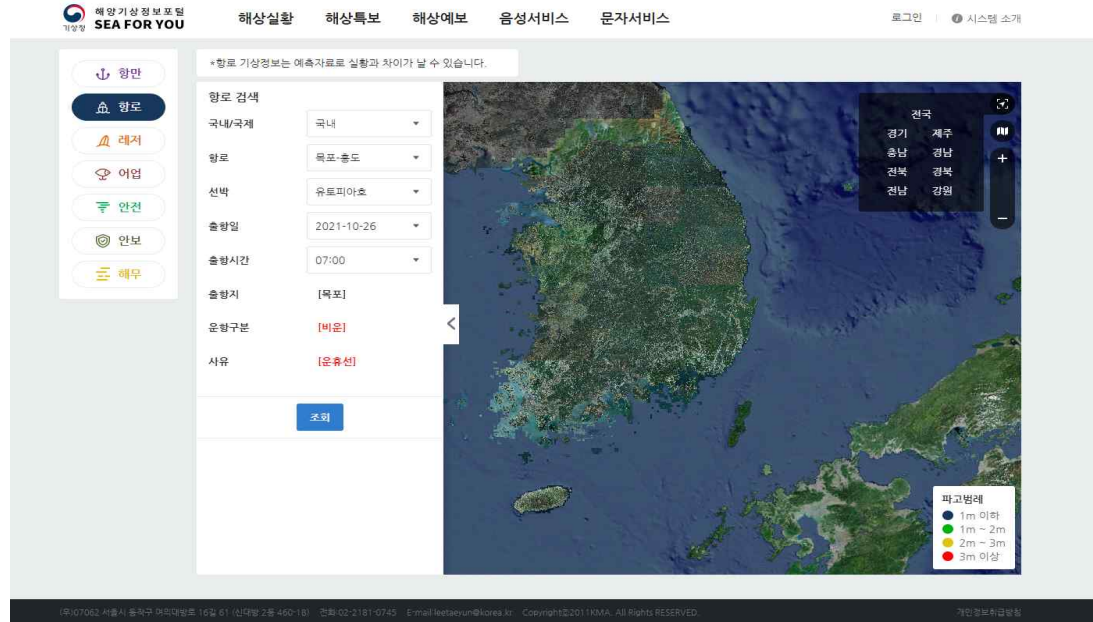
- 김경석 공단 이사장은 “해양기상정보는 해양안전 정책수립과 해양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데이터”라면서, “해양기상정보포털의 항로기상 융합서비스가 여객선 이용객과 도서주민이 바닷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가는데,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-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항로기상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”라며, “이를 통해 도서주민에게는 일상의 안전을, 여객 이용객에게는 안전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: 해양기상정보포털 항로기상 융합서비스



< 항로기상 융합서비스 표출 예시(당일 정상운항) >



< 항로기상 융합서비스 표출 예시(운항통제, 비운항 등) >